

News

중금리 묶인 인터넷은행...실수요자 차별논란

데일리안

인터넷은행, 고신용 실수요자 차별 논란... 고신용 고객 비중이 높음에도 특별대출에 불참할 의사 밝혀... 은행연합회의 신용대출 특별한도 정책에 인터넷은행은 참여하지 않기로... 특화된 전산 개발 등 비용 문제도 있어... 일부 차주에게만 대출 공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치솟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관심 쏠리는 '고정형'

뉴스시스

코픽스 치솟으면서 고정형 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 높아져...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로 전월비 0.26%p 상승
코픽스 상승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일제히 상승... 일부 은행에서는 변동형 상품 금리가 고정형 상품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

중기대출 특화 기업은행, 금리 제일 높아

쿠키뉴스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평균금리 4.75%로 5대 시중은행 평균 3.92%보다 높은 수치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본연 책무 상기 및 비판... 사측은 신용도가 비교적 미흡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로 동결

조선비즈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0%로 동결...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채권 매입은 내년 3월에 중단하기로...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0.50%와 0.25%로 유지 결정... 경제 회복과 중기 물가 목표치 달성에 진전이 있어 향후 분기에 자산 매입 속도 단계적 낮춰도 된다고 판단

자동차보험료 인상? 인하?...혼란한 소비자들

뉴스시스

위드코로나로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치솟고, 정비수가 인상(4.5%)와 함께 폭설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료 인하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 제기
지난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4개사 손해율 85.5~87.4%로 잠정 집계... 11개사 평균하면 91%... 인상 요율은 다음주쯤 정해질 것 예상

정은보 "백내장 수술 등 실손 비급여 지급기준 정비"

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감원장, "실손보험 인상 요율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은 정비해 국민 보험료 부담 줄이겠다" 언급
현재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안내문 발송 중... 한번에 20%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제는 '옥수수·콩'까지...증권사, 원자재 강세에 ETN 출시 봇물

뉴스핌

원자재 가격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ETN 시장에 뭉치듯 유입... 올해 ETN 시장 규모 8조 5,000억원 기록... 2014년 이래 최대치
평균 수익률은 4.44% 기록...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상품 내놓을 것으로 전망

마무리 되는 IPO 시장...미래에셋 '뜨고' NH투자 '지고'

뉴스시스

래몽래인을 끝으로 올해 기업공개 시장 마무리... 올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주관업무를 수행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총 21건)
전통적 IPO 강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건수 기록... 내년 초에도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들 상장 연이어 기대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